

2010 

# 동북아여성 평화회의

  
“2010 NORTHEAST  
ASIAN WOMEN'S PEACE  
CONFERENCE”

한반도평화체제 형성과 여성의 역할

WOMEN'S INITIATIVE FOR CREATING KOREAN PEACE REGIME 

Day 3, DMZ Tour 자료집  
“DMZ에서 여성평화를 꿈꾸다”

일시: 2010년 10월 7일(목)

주최: 동북아여성평화회의추진위원회

주관: 민화협여성위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후원: Friedrich Ebert Stiftung(에버트재단)



## 2010 동북아여성평화회의 “DMZ에서 여성평화를 꿈꾸다”

진행: 김 정 수 (동북아여성평화회의공동집행위원장)  
 안배: 최양현진 (DMZ 전문가이드  
 <한국사의 중심 DMZ> 저자)

### ● Day 3: DMZ 투어 프로그램-2010년 10월 7일(목)

시 간	내 용	비 고
08:30-	* 참가자 집합	종로5가 100주년기념관
09:00~10:20	* 이 통 (서울→오두산전망대)	
10:20~11:20	* 오두산전망대, 한강하구 조망	
11:20	* 통일촌으로 출발	
12:00~13:00	* 통일촌에서 점심식사	통일촌부녀회 식당
13:00	* 도라산전망대로 출발	
13:15~14:30	* 분단현장 답사 (도라산역, 도라산전망대 등)	
14:30	* 대인지뢰피해지역(파주 금파리로 출발)	
15:00~15:50	* 대인지뢰피해지역 주민들과의 대화	
15:50	* 적군묘 도착	
16:30	* 서울로 출발	
17:30	* 여성미래센터 도착	

#### ■ 참가자 여러분께 알려드릴 말씀

- 진행팀의 안내를 따라 공동행동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 지역 주요 기행 장소>

### Peace & Security Tourist Spot Unification Observatory

● Odu Mountain observatory



Located in ODU mountain with a superb scenic beauty with Han river and Imjin river, Unification Observatory was built as the stone building with 5 floors on the ground and 1 floor under ground, and then was opened on September 8, 1992. Unification Observatory is 460m distant from the North Korean area and has the shortest distance of DMZ out of 155 miles of the border. From the round shape's observatory located at the height of 140m above the sea level, the farming figure of North Korean people can be observed. Also, to know the living figure of the North Korean people, clothes, textbooks and necessities of life are displayed. Unification Observatory plays the role of the unification education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divided Koreans properly and to newly resolve on the will of unification. In the Unification Observatory, Manbaedan for looking back the dispersed family during

### Peace & Security Tourist Spot Dorasan Station

●



Dorasan Station is the northernmost station of the South Korea which is 700m distant from the southern boundary line of DMZ, the civil control zone. Since US president Bush visited Dorasan Station on February 20, 2002, it has come into spotlight internationally. Injimak Station was opened in October 2001, and th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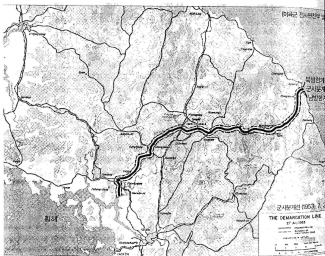
1) 본 자료는 최양원권, <한국사의 중심 DMZ>, 푸른하늘, (2010)에서 발췌되었습니다. 영문자료는 파주시청 영문 홈페이지에 소개된 것입니다.

Dorasan Station, the unfinished station of the north-south Korean reconciliation was opened on February 12, 2002 (the lunar New Year's Day) through the special Mangbae train operation in 52 years after the railroad service was stopped. The milestones of Dorasan Station (205km to Pyongyang, 56km to Seoul) imply the reality of the division between two Koreans and a future hope and expectation. Because Dorasan Station is the northernmost station of the South Korea in the southern boundary line, Dorasan Station will play the role of customs and entry for Chinese and Russian people and goods as well as the North Koreans if Gyeongui Line Railroad connection is completed and the traffic is possible between two Koreans. Also, Dorasan Station contains the historical meaning as a symbolic place of the division between two Koreans and a gateway of the south-north exchange.

## □ DMZ의 일반사항

### 1. DMZ와 민간인통제구역(CCL)의 개념과 역사

〈지도〉 비무장지대와 군사분계선의 남방·북방한계선을 보여주는 지도



## ■ DMZ

비무장지대(DeMilitary Zone)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에 의해 설치된 지역이다. 1953년 정전 당시의 남북대치 전선을 군사분계선으로 확정하고, 이 분계선을 기점으로 하여 남북한 각 2km 지역을 후퇴한 다음 이 공간을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였다. 이 비무장지대는 서로의 적대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완충지역 역할을 한다.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이남의 부분에 있어서의 민사행정 및 구제사업은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책임지게 되어 있다. (정전협정 제1조 10항) 현재는 주한 주둔 유엔사 사령관은 토머스 슈워츠 미국육군대장이다.

정전협정에 의한 비무장지대의 면적은 155마일(248km) × 4km = 3억평이 된다. 그러나 실질적인 면적은 이만큼 되지 못한다. 그 이유는 남북 상호가 서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앞당겨 군을 배치했기 때문이다. 남북한 가장 가까운 고지는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태풍전망대이다. 태풍전망대는 군사분계선에서 전망대까지 800m이며, 북한군이 있는 초소까지는 1,600m밖에 되지 않고 있다.



그림 군사분계선 표시

## □ 한강하구수역

정전협정은 남북의 교전당사자(군대)를 분리하여 "무적행위의 완전한 정지"(서문)를 보장하는 분계선과 지역(공간) 설정을 4개 항목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 - "쌍방"이 승인한 구역 또는 수역의 해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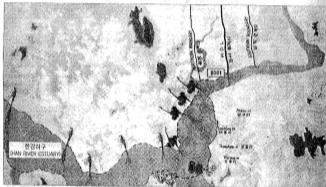
1. 지상(地上)의 군사분계선(線) 및 비무장지대(서해안에서 동해안까지의 육지 공간:DMZ) :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1, 2, 3, 4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의 지상 약 250km 길이의 "휴전선"과 그 남북에 협정상 각기 2km의 폭을 가지고 설정된 비무장지대(DMZ)라는 "완충지대"에 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2. "한강하구 수역"이라는 남북공용의 특수 구역 : 한강이 서해에 유입하는

"한강하구(漢江河口) 수역"은 정전협정의 제1조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제5항에 의해서 남북한 쌍방의 민간선박(주로 어선)에게 그 이용이 개방되어 있다. 이 규정의 성격은 육지상의 비무장지대가 남북의 민간이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그 협정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1조 제5항 : 한강 하구의 수역으로서 그 한쪽 강안(강기슭)이 다른 일방의 통제하에 있는 곳은 쌍방의 민간선박의 항행에 이를 개방한다. 김부한 지도에 표시한 부분의 한강하구의 항행규칙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규정한다. 쌍방 민간선박이 항해함에 있어 자기측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육지에 배를 대는 것은 제한받지 않는다.

(지도 2) 한강하구의 군사분계선을 나타내는 지도



군사분계선은 한강하구(임진강 강변)에서 시작해서 동해 해안에서 끝난다. 지도 2와 2a를 보면 한강 하구나 해상은 군사분계선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정전협정 침무지도 제2도)에서 보듯이, 남북 민간선박이 자유항행 이용할 수 있는 이 특수 구역은,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지점(동쪽)에서부터 다시 한강이 되어 강화도(江華島) 북변과 북한의 황해도 의 예성강이 만나서 넓은 한강하류 수역을 형성하여 넓어지면서, 북쪽의 굴당포 끝과 남쪽의 작은 섬 불음도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불구불한 모양의 남북간 수역이다.

이 규정은 그런 용어나 표현으로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한강하류에서 황해에 접하는 남북한 사이의 수역은 일종의 "국제수로(international water

ways)' 성격으로 규정하였다. 이 서해안 한강하구 수역내에서 남북한의 민간 배들은 일종의 '자유통행권(right of free passage)' 또는 '무해통행권(right of innocent passage)'을 인정받고 있다. 구역은 정전협정 조인 당사자 '쌍방이 공인'하고 또 '쌍방이 관리하는 구역으로 규정되었고, 지금까지 40여년간 그렇게 유지되었다.

이 "쌍방"이라는 용어가 중요하다 육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를 제외하면, 서해바다에서 이 "한강하구 수역"만이 북한과 유엔군 총사령관의 "쌍방"이 인정 합의하고 "쌍방"이 "함께" 관리해온 수역이기 때문이다. 이번 남북한 해군 충돌 후에 우리 정부(국방부)당국자들이나 언론계의 어떤 식자들은 이른바 "북방한계선"과 그 선을 따라서 남쪽에 한국측이 설정한 "완충구역"이나 "이르한계선"을 북한측이 1991년 12월 13일에 조인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합의서)"의 "부속합의서" 제3장 "불가침 경계선 및 구역" 제9조와 제10조에서 인정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런 해석은 옳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남북합의서 '부속합의서'에서는 정전협정에 관하여 어느 '한 쪽'의 행위나 결정을 적시할 때는 그 상황의 경우에 따라서 '일방', '자기측', '상대측(또는 상대방)'으로 표기하고, 협정당사자 또는 남북이 "함께"인정했거나 함께 관할했거나 하는(해 운) 일을 적시할 때는 반드시 "쌍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용어의 엄격한 구분은 남북합의서의 부속합의서를 작성하는 협의과정에서, 북한 쪽이 정전협정의 쌍방(유엔군 총사령관과 북한 중공군 사령관)이 "함께" 인정하고 합의하여 조문화한 결정사항으로써 함께, 즉 '공동'으로 관리해 온 일만을 "쌍방이 지금까지 관리하여 온" 선 또는 구역으로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한쪽"과 "양쪽"을 엄격히 구분한 이 용어의 뜻을 한국(남한)측 대표들이 인식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추측된다. 북측은 "북방한계선"은 남한이 "자기측" 또는 "일방"으로 설정한 선이지 정전협정상의 "쌍방"의 개념에 해당하지 않는 선 또는 구역으로 주장하는 것 같다. 이 협정용어의 분별적 사용은 이번 해군충돌과 "북방한계선"의 협정상 효과를 가르는 핵심적 기준이 된다는 중대한 사실을 많은 논자들이 간과하고 있다.

## □ 서해5도와 NLL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극동 해군사령관은 1950년 7월 4일 봉쇄한계선을 설정하였는데, 동해는 41도선, 서해는 북위 39도 30분선으로 설정하여 해상에서 제해권을 장악하였으며, 1951년 9월 27일에는 UN군 사령관이 해상 방위



수역인 Clark Line을 선포하여 적성선박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의 체결 및 발효로 무력행위가 정지되자 UN군 사령관은 1953년 8월 30일 정전협정 제2조에 따른 해상에서의 병력철수 등 정전협정 내용의 이행과 잠재적인 군사고전을 줄이려는 의도하에 UN사의 함정 및 항공기에 대한 일방적인 통제를 목적으로 서해지역 남북한사이에 이른바 NLL을 설정하고 이를 해군부대에 시달하였다. 이 선은 물론 정전협정에는 근거가 없으며 1953년 8월 이후 한국군과 주한 미해군의 작전명령 서상에만 명시된 선이었다.

물론 북한에 공식적으로 통보된바도 없다. 물론 북방한계선(NLL) 과 군사분계선 연장선(MDL Extension or NBL:북방경계선)을 유엔군사령부가 북한 당국에 정식통고하였다는 한국 학자들과 외무부 연구보고서에도 그러한 기록이 있으나, 이러한 사실은 UN군 사령부 당국이 부인하고 있고, 달리 확인되지도 않고 있다.

동 NLL은 UN사가 1952년 9월 27일 당시에 소위 " Clark Line"과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뜻에서 NLL은 일종의 "방어수역" 혹은 "전쟁수역"을 의미 할수 있다.

단지 공식 자료에 의하면 북한이 실시한 경비구역의 경계는 대체로 북방한계선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북한 해군은 1953년 8월부터 1973년 10월까지 약 20년동안 사실상 북방 한계선 이북에서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 UN사가 정한 일방적인 통제선을 남한과의 해상경계선으로 지켜오고 있다고 한다.

위의 주장에 대해 북한이 지난 20년 동안 UN사가 일방적으로 선언한 국제법적 근거도 없는 NLL선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는데는 수긍을 쉽게 할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실사 UN사의 일방적 NLL선언을 실력으로 부정하고 싶어도 6.25 전시중이나 전시 후에도 북한의 해군력은 완전 괴멸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자체 빈약한 해군력으로 NLL선 이남을 장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후 북한은 1973년 12월 1일 제346차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정전협정의 관계조항을 들어"서해 5개 도서 주변수역은 북한의 관할 수역이며, 이들 도서 자체가 정전협정에 명기된 대로 UN군 통제하에 있음은 인정하나, 그 주변수역을 통제하는 북한의 사전승인을 받아서 통항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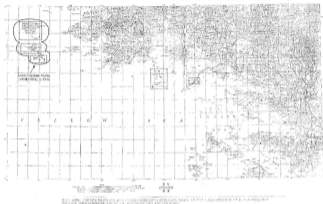
이 주장이 있은 후 북한은 NLL 남측에 위치한 우리 측 함선을 정전구역의 "침범"으로 비난하였고, 의도적으로 북방 한계선 남쪽으로 그들의 함선을 월선시켰다. 그러나 서해 사태이후 연평도, 소청도, 대청도, 덕령도를 통항하

한반도 통일지도

한반도 통일지도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된 지도로,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1.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된 지도
2.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
3.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
4.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
5.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

한반도 통일지도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된 지도로,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된 지도로,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지도는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작성된 지도로, 남북 양측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는 우리측 함선이 북한에게 사전 통행승인을 받고 통항 한 것은 아니다. 다만, 종래(1973년 10월)보다 더 의도적인 북한측 한계선의 북방한계선 침범이 빈번하게 되어,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조치로 실질적인 한국측 서해 경비선은 북방한계선보다 약 2-4해리 정도 남하 조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생각컨대 서해에서 위의 사실상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때, NLL이 남북한 양측이 사실상 관할하여온 해상 구역의 경계로 기능하여왔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민간인 통제구역

민간인 통제구역은 휴전선 일대의 군 작전 및 군사시설보호와 보안유지 목적으로 민간인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南方限界線)으로부터 5~20km 밖에 민간인 통제선(民統線 :Civilian Control Line) 이 설정되고 있으며, 민통선에서 남방한계선까지의 지역을 말한다. 휴전 협정에 의해 설정돼 군대의 주둔이나 무기의 배

치, 군사시설의 설치가 금지되고 있는 비무장지대(DMZ)와는 구분된다.

민간인 통제구역은 동해안에서 서해안까지 비무장지대를 따라 띠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바다에는 설정돼 있지 않다.

설정당시 기준 총면적은 1,528km<sup>2</sup>(강원도 1,048km<sup>2</sup>, 경기도 480km<sup>2</sup>)이며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군과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강화군 등 2도 9군 24읍면 213개 리(민간인 미거주 지역 포함)에 걸쳐 있다.

지역 내에서는 군 작전과 보안유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민간인의 영농을 위한 토지이용이 허가되고 있으나 지역내의 출입과 행동, 경작권을 제외한 토지소유권의 행사 등 일부 개인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이 통제되고 있다.

민통선 1954년 2월 미 육군 제8군사령관의 직권으로 설정되었다.

한국전의 휴전 후 미 육군은 민간인의 귀농(歸農)을 규제하는 귀농선(歸農線)을 설정하고, 그 북방의 민간인 출입을 금지하였다. 휴전선 방어 임무를 한국군이 담당하면서 1958년 6월 군 작전 및 보안상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출입영농과 입주영농이 허가되었고, 귀농선은 민간인 통제선(민통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민통선 통제권이 한국군에게 이양된 후에는 국토이용의 제고와 북한의 계획적인 선전 준비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필요에 따라 1959년부터 99개의 자립안정촌(自立安定村)을 건설하였으며, 1968-1973년에는 12개의 재건촌(再建村)을 건설하였다. 그리고 1973년 2개의 통일촌(統一村)을 건설하였다. 정책적 필요에 따라 조성된 이들 마을은 1985년 현재 강원도 고성·인제·화천·양구·철원 등 5개군 11개 읍면에 31개소, 경기도 연천·파주·김포·강화군 등 4개군 13개 읍면에 81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 1953년 8월 '사민(私民)의 비무장지대 출입에 관한 혐의'를 근거로 비무장지대 내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대성동 마을(일명 '자유마을')이 설치돼 민통선 북방지역 마을은 총 112개 마을에 이르고 있다. 민통선 북방마을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이다. 그러나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에도 출입영농이 허용되고 있다. 행정구역이 복구되지 않은 강원도 지역 52개 리, 경기도 지역 51개 리에 출입영농이 허용돼 사실상 민통선 북방지역 전역에서 부분적이나마 영농이 실시되고 있다. 당시 민통선 북방지역 인구는 총 8,799세대 3만9,725명(강원도 2,466세대 1만939명, 경기도 6,333세대 2만8,786명)으로 집계됐다.

### 3. DMZ와 지뢰

한반도에서 대인지뢰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1950년 6월 한국전쟁에서부

터이다. 특히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성립되기까지 유엔군은 휴전선을 중심으로 대량의 대인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때 유엔군은 휴전선을 고착화하기 위하여 헬리콥터를 통하여 M14 플라스틱 대인지뢰를 휴전선



그림 지뢰 지역을 나타내는 지뢰 표시판

일대에 살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53년 7월 휴전협정에 의하여 비무장지대와 민간인통제구역(Civilian Control Line)을 설정하였다. 비무장지대는 물론이고 민통선 안에는 많은 지뢰가 매설되어 있고 이 때문에 민간인의 출입을 오랫동안 인천적으로 금지되었다. 그런데 50년대 후반부터 휴전상태가 지속되고 평화적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민통선 안에 있는 전담을

농민에게 경작하도록 허락하게 되었다. 부분적으로는 민통선 내 지역에 거주하여 살도록 하였고 양구 해안면과 같이 먼 단위의 마을이 형성되기도 했다. 이주민들은 군으로부터 허가된 전담을 경작을 위하여 개간하여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뢰사고를 당하게 되었다. 심지어는 어린이들이 대인지뢰를 가지고 놀다가 지뢰가 폭발하여 사망하기도 하고, 어른들은 밭을 갈다가 지뢰를 밟아 밭목이 잘리거나 폭풍 지뢰를 밟아 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전차지뢰가 폭발하여 사망하기도 하였다. 더구나 그들이 목숨을 걸고 토지



개간을 마치고난 이제는 땅 주인이 나타나 소작인으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기 위해 이러한 표지판들이 세워졌다.

왔다. 그러나 많은 지뢰피해자들은 '폭발물 사고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군부대와의 약속 때문에 배상신청도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 민간인 피해 지뢰자가 알려지게 된 것은 1998년 2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조디 윌리엄스가 민통선 근처 마을인 파주 금과리를 방문하면서 서부터이다. 당시 윌리엄스는 금과리에서 사는 7명의 피해자들에게 의족을 선물하면서 지뢰 사용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 ● 지뢰개념

지뢰는 소형이고 매설된 폭발물로서 폭파되면 사람과 기계류 등을 기능

불능상태로 만드는 것을 뜻함.

이와 같은 지뢰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적군은 지뢰 1발당 4000원의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이를 제거하는 데에는 달게는 300백만원 까지도 그 경비가 소요될 수도 있는 가공할 만한 전쟁 무기류라고 할 수 있다.

지뢰가 세계적인 문제가 되는 가장 큰 문제는 이와 같은 전쟁 무기류가 전쟁이 종식된 이후에도 다른 전쟁 무기류와는 달리 분쟁의 종식 이후에도 제거되지 않는 한 일반인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존재로써 남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계적으로는 약 15분 간격으로 새로운 희생자가 속출하는 것이 지뢰문제의 심각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지뢰는 지표면 아래에 배치된 폭발물으로써 지뢰의 중요 목적은 전쟁상태에서 대규모의 적의 전진속도를 둔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림 지뢰로 인해 다리가 잘린 산양

지뢰는 크게 그 사용 목적상 지뢰의 집중배설지역(일명 지뢰지대)을 통해 전진하는 적군을 살상 또는 불구로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대인지뢰(Anti-Personnel, AP) 대인 지뢰보다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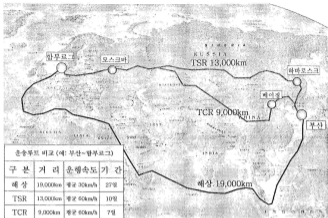
그 크기가 크고 무장탱크를 파괴 또는 그 기능을 못하도록 피해를 주기 위해 설계한 대전차지뢰(Anti-Tank, AT)로 나눌 수 있다.

대전차지뢰는 도로면에 배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대인/대전차 지뢰들은 압력 감지 장치(Pressure Sensor)에 의하여 작동되며 대전차 지뢰의 경우 때에 따라서는 전자기 감지장치(Electromagnetic Sensor)에 의하여 작동되는 경우도 있다.

그 밖에도 지뢰의 기폭방법으로는 다수의 획기적인 방법들이 있다. 지뢰는 가격면에서 한 반면 손쉽게 전술적인 위치에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과 더불어 기동성이 필수적인 분쟁지역에서 강력 방어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또 다른 장점으로 들 수 있다.

## ■ 경의선

경의선 철도는 서울과 의주간 철도이다. 경의선은 남으로 경부선과 연결되고 북으로 압록강을 건너 중국의 안봉철도(안동~봉천)와 연결됨으로써 한국



<그림 3> 경의선, 경원선 복원 후의 세계진출

을 매개로 하여 일본과 아시아 대륙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교량적 성격을 지닌 철도였다. 이러한 지리적 특수성 때문에 경의선은 19세기말 20세기초 열강의 이권경탈의 표적이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한국인의 자주적 철도부설에 대한 움직임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던 철도다.

프랑스에서 경의선 부설권을 되돌려 받은 조선 정부는 서북철도국을 창설하고 총재 이용익으로 하여금 1901년 7월 서울-개성의 노선 측량을 완성케 하였다. 1902년 3월 이용익은 전한국에서 30만원의 자금과 20만원의 공사비를 지원 받아 철도건설공사를 착수하며 대내외적으로 자주적인 철도부설의 기지를 내걸었다. 일본의 자금지원에 대한 계의도 뿌리치고 진행되었던 경의선은 결국 러일전쟁 중 일본에 의해 군사용 철도로 부설됐다. 일본의 아시아 대륙 침략을 위한 철도로 부설되었던 경의선은 6·25 전쟁 이후 끊어짐으로써 남북 분단의 상징이 되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지 꼭 50년이 되는 해인 2000. 9. 18. 경의선은 남북 통일을 위한 상징으로 다시 연결되기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처럼 경의선 철도는 한국 근·현대사와 그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경의선 철도의 복원은 단순히 끊어졌던 선로가 다시 연결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 근·현대사의 연결을 의미한다.

## ■ 자유의 다리

자유의 다리는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 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이하 한국전쟁 정전협정) 제3조 전쟁포로에 관한 조치에 의거해 시행된 포로교환시 한국전쟁 포로 12,773 명이 남쪽으로 귀환하였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의 다리로 명명한 다리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에서 한국이 빠져있던 관계로 남측정부가 직접 인도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경의선철교 남측하단에 임시교각을 만들어 남측 포로를 인도받을 수 밖에 없었다.

원래 경의선 철교(일명 독개다리)는 상하행 2개의 교량이 있었으나 폭격으로 파괴되어 교각만 남아 있었는데 전쟁 포로들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서쪽 교각 위에 철교를 복구했고 그 남쪽 끝에 임시 교량을 가설했다. 당시에는 포로들이 차량으로 경의선 철교까지 와서 걸어서 자유의 다리를 건너왔다고 한다.

자유의 다리는 자유의 다리는 문산읍 마정리 임진각 광장 앞 망매단 뒷편에 놓인 다리로 경기도 기념물 제 162호(지정 년월일 : 1996년 12월 24일)로 지정되어 있으며, 소유자는 국가로 되어 있다.

현재 자유의 다리로 명명되는 "신자유의 다리"는 원래 교각의 노후로 인하여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다 1999년 새로 신축한 것이다.

자유의 다리는 6경간으로 이루어진 목조 평교형식으로 길이는 83m, 폭은 4.5~7m, 높이는 8m 내외이다. 순수한 목구조는 아니고 인장력을 많이 받는 부분에 철재를 병용하여 만든 혼합 구조이다.

통나무가 4개의 4열로 세워진 교각 위에 사각 받침목과 I형 강으로 만든 철계 보가 짜올려지고 그 위에 장선이 놓인 후 나무로 만든 상판이 올려져 마감되었다.

## ■ 전망대이야기

### ● 오두산전망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에 위치하고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주고 통일교육의 체험 도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1992년 지상5층, 지하1층 건물로 건립되었다.



<그림 4> 오두산전망대

서울의 젓줄인 한강과 북에서 흘러내리는 임진강이 합류하는 서부전선 최북단 휴전선에 위치하고 있는 오두산 통일전망대는 북으로는 개성 송악산, 남으로는 서울의 63빌딩까지 한 눈에 볼 수 있으며, 시원하게 뚫린 자유로를 따라 동북방향으로는 임진각, 제3땅굴, 관문점과 연계되는 통일안보관광지이다.

해발 1백40미터의 높이에 자리잡은 원형 전망실에서는 북으로는 개성의 송악산, 남으로는 여의도 63빌딩을 바라볼 수 있다. 1,2층의 전시관에는 북한실과 통일실을 마련하여 북한실상과 남북한의 어제와 오늘 및 통일 한반도 미래상을 보여주는 사진, 영상실, 대형지도 등의 시설과 북한 상품도 소매점 등이 있다. 이외에도 통일 영원실, 망배단과 지름2M, 무게600kg의 거대한 통일 기원북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만식 선생의 동상도 세워져 있다.

개관 이래 지금까지 약 1천만 명이 방문하여 분단현실을 체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국민통일교육장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그림 5> 오두산-한강



<그림 6> 오두산-임진강

오두산은 한강과 임진강 하류가 맞닿은 곳에 표고 119m로 솟아있으며 주변에 높은 산이 없어 산 정상에 서면 서쪽으로는 북한 지역 이, 남쪽으로는 김포평야가 한눈에 들어온다.

또한 서쪽으로는 한강이 북으로는 임진강이 흐르고 있어 두 강이 만나서 서해로 흘러드는 길목에 위치해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리 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



## ● 도라전망대

도라전망대는 1986년에 사업비 약 3억원을 들여 국방부에서 설치한 통일 안보관광지이다. 이 전망대는 남측에서는 유일하게 북한의 두 번째로 큰 도시인 개성시가 선명하게 보이는 곳이다.



〈그림 8〉 도라전망대

송악산 OP폐쇄에 따라 대체 신설되었으며 북한의 생활을 바라볼 수 있는 남측의 최북단 전망대로서 개성의 송학산, 김일성 동상, 기정동, 개성시 번두리, 기차화통(장단역), 금안골(협동농장)등을 망원경을 통해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연건평243평으로 관람석 500석, VIP실, 상황실, 주차장(30~40대)등의 부대 시설이 있으며 일반에게는 1987

년1월부터 공개되었다

망원렌즈 안으로 보이는 북측의 '금안골'이라는 농촌마을에는 북측 주민의 움적임과 초등학교에서 어린소년들이 군사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 관측되기도 한다.

북측의 위장전진 마을인 기정동 마을(최남단 마을)과 비무장지대는 허리가 두 동강이 난 조국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

